

순천 여대생 납치 용의자 숨진채 발견

“미안하다... 따라했을 뿐이다” 메모 남기고 목 매

범행과정·수법 등 의혹 모두 미궁 속으로...

경찰, 현금 1900만원 터미널물품보관소서 찾아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 피의자가 공개수배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피의자가 붙잡힐 경우 범행 배경·과정·수법 등 여러 면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누가 범행을 주도했는지 등 사건 전말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오후 2시30분께 순천시 석현동 모 문준 제과 인근 소나무에서 정모(24)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정

씨가 산산 주변에 나타날 수 있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이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 하루 전날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선 “x×야 미안하다. 너는 친구 잘못 만나서... (이번 범행은) 따라서 했을 뿐이다”는 내용 등이 담긴 A3용지 크기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씨가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서자 등 수사를 쫓겨오자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정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러 의혹을 풀만한 실마리도 찾기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납치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정모(23)씨를 붙잡은 뒤에도 범행 배경·과정 등 여러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만해도 경찰은 정씨가 검거돼야만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이날 정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공개수배를 한 이유다.

경찰은 특히 숨진 정씨의 자필 메모에 적힌 내용과 검거된 정씨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누가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경찰은 불합된 정씨 진술에의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그러나 구속된 정씨 진술을 토대로 납치 피해자 윤모(여·25)씨의 집에서 사라진 현금 2300만 원 중 19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전주 버스터미널 물품보관관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 및 이동로를 따라 CCTV를 분석, 터미널 내 물품보관한 40여 개를 일일이 확인해 현금 등을 확보했다.

한편, 정씨 등은 지난 5일 밤 9시께 순천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윤씨를 렌터카로 납치한 뒤 6시간 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탈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이 윤씨의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2300만 원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낮엔 당구장 주인 밤엔 성폭행 야수

‘알바’ 소녀가장 협박 수습차려 범행 30대 구속

경제년에 힘들어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협박, 1년 반 동안 수십여 차례 성폭행 한 과립치한 당구장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소녀는 협박에 따른 후환과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부부가 경제력 부양 능력이 없어 사실상 소녀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아 사회 안전망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0일 자신의 당구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여·당시 15세)양을 협박해 수십여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공주 이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6일 새벽 3시경 광주시 북구 용봉동 자신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A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인근 음식점으로 유인, 강제로 술을 먹고 모택로 끌고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년 6개월 가량 수십여차례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나는 국제PJ과 조직폭력배다”, “친구를 중

반은 고교소에 있다. 얌전히 내 말을 듣는 게 좋다”며 A양을 협박해 강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후 매일 2~5차례씩 A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A양이 거부하면 “너희 집 앞에서 너를 강간하겠다”, “말 없이 도망가면 산에 물어버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A양은 3년 전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2차례의 수술을 받으면서 사실상 소녀 가장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한 달 40만원 가량의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받아 90살 노모를 봉양하며 지내왔다.

A양은 경찰에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씨의 협박이 계속된다. 어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이 자신이 일하는 곳의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양을 원수집지원센터에서 상담하게 한 뒤 이씨를 붙잡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니원침



여수 30대 호수에 빠져 숨져

10일 오후 5시 50분께 여수시 화강동의 한 공원 호수에서 A(34)씨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옷에서는 신분증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A씨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실종 신고 및 타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프로골퍼 아내 때린 방송인 마르코 입건

서울 성동경찰은 아내를 때린 혐의(폭행)로 배우 마르코(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마르코씨는 지난 9일 오후 자택에서 유인 안시현(29·프로골퍼)씨와 말다툼하다 안씨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안씨는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멋있다” 초등생 묘기용 자전거 훔쳐

○...‘묘기용 자전거’에 반해 무턱대고 가져가 타고다니던 10대 소년 이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10)군은 지난 3일 학교 동문 시간에 김모(21)씨 차 마당에 세워진 시가 200만원 상당의 묘기용 자전거를 훔쳤다는 것.

○...A군은 처음엔 선배들이 준 것이라고 우기다가 경찰이 학교 주변 CCTV 등을 보여주자 “멋있다 보여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즐거운 어르신들 10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연장에서 열린 개원 4주년 기념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교육청, 교장 연수에 산 삭감 요구 논란

추경에 넣었다가 시의회에 ‘깎아달라’... 시교육청 “그런 일 없다”

추경에 교장 연수 예산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이 심의를 앞두고 난데없이 해당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광주시의회에 요구해 의원들이 항당해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3회계연도 광주시 교육특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에 ‘CEO를 위한 리더십 연수 경비’ 4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초등학교 교장 20명을 광주교육대 교육연수원에 보내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광주교육대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교육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이 추가경정 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깎아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시교육청 관계자가 직접 시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중앙정부 사업을 면밀한 검토없이 자체예산으로 마련해 생색내기를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소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심성 예산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이 우려되자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교육계와 시의회를 이간질하려는 황당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삭감 요구는 있을 수 없다”며 “교육대학이 시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남감하다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예산 삭감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jv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비고
2012타경 26662	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93번길 3-1, 1층	아파트	33,000,000	33,000,000		
2012타경 32155	1	광주광역시 동구 계원동 296-14 106㎡	단독주택	111,793,530	111,793,530	건물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2타경 33547	3	영광군 백수읍 백수로 785-1 1층 정포 50, 52㎡ 2층 주택 48, 12㎡	정포및주택	15,585,120	600-2면적, 인접도	600-2면적, 인접도	본지외양상지에 소재
2012타경 26662	3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57-9 지하층 27, 45㎡	다세대	13,000,000	13,000,000		
2012타경 26662	5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148-2 278㎡ [일부]	전	5,004,000	5,004,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6662	6	국성군 옥사동면 신기리 240-3 1020㎡ [도시계획시설도로저축] 제시외 적업설 등 31 0.08㎡	전	22,869,520	22,869,52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28378	1	당양군 남면 가원리 103 85㎡	담	19,162,500	19,162,5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2타경 33547	1	영광군 백수읍 천마리 206-6 1129㎡ 제시외 창고 등 303㎡	담	27,771,000	27,771,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2타경 26662	2	광주광역시 관산구 소촌동97-1 소촌2차라 인아파트 상가층 지하층 1호 32.50㎡	근린시설	18,000,000	18,000,000		
2012타경 3895	1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동 화로89, 2층 203호 [지평동, 상무구영드림빌] 113.1㎡	근린시설	342,000,000	342,000,000		
2012타경 11844	1	광주광역시 관산구 장수동 140 251㎡	대	1,391,582,000	1,391,582,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적4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장및공업지대	
2012타경 1059	2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935 726㎡	대	57,676,900	57,676,9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기타]

2012타경 11844	1	광주광역시 관산구 장수동 140 251㎡	대	1,391,582,000	1,391,582,0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목적4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장및공업지대	
2013타경 1059	2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11-8 1층 [숙소] 51, 75㎡ 2층 [사무소] 21,00㎡ 제시외 가차 등 36.9㎡	공장	57,676,900	57,676,9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2013타경 1059	2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 936-2 215㎡	도로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최고가매수인단이 매각물건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013. 6. 11. 10:00

3. 매각결정일자: 2013. 7. 2. (화) 16:00

4.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입찰장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 비공개 기밀인찰표에 서면으로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매각물건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양방향은 최고가매수의 1회 [10바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각가격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금의 액을 채운 문(인원 보증서)을 준비해야 한다.

② 2인 이상 공모로 입찰하지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에 중대한 과실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인단으로 인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인단과 차순위매수인단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장치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은 대금 지급일과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물건에 확정되어 매각대금 지급일과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대금 지급일은 매각대금결제일 후 1주일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매각대금결제일과 매각대금결제일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대금결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각대금 지급을 면제한다.

③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② 소유권이전 및 인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매각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매각대금결제일과 매각대금결제일 후 1주일 이내에 매각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국민수익증상부담보 등을 기한 상환을 면제해 준다면 매각대금 지급을 완료한다.

③ 소유권이전 및 인도에 중대한 과실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인단으로 인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④ 최고가매수인단과 차순위매수인단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장치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우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만주 주민등록인상신고서와 매각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입찰신청의 유효성에 중대한 과실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가매수인단으로 인정하고,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③ 매각대금결제일과 매각대금결제일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대금결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각대금 지급을 면제한다.

④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⑦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⑧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⑨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⑩ 매각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대금납부서 위촉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결제 실시하지 아니한다.

2013. 6. 1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용민